

##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 1. 기본정보

학과	국제통상학과	이름	이XX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Harrisburg
파견대학	Shippensburg University	파견기간	2021년도 2학기~ 2022년도 1학기
귀국여부	귀국 함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시펜스 버그 대학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창보다 주변에 아무 것도 없다 보니, 학생들이 여가시간을 운동, 공부, 파티로 보내요. 그래서 미국에서 Party School로 유명해요. 교수님들은 다들 친절하시고, 교내에서 인종차별을 경험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을 포함하여, 동양인 자체가 극히 드물고 거의 7할이 백인 2.8할이 흑인, 나머지가 동양인인 것 같아요.</p>
2021-2학기 수업	<p>1. Human resource management 교수님 친절하시지만, 엄청 깐깐하세요. 전 인적자원관리는 처음 들어서 좀 어려웠어요. 기본적으로 미국 문화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해서 한국인에게는 조금 힘들고, 수업시간 내에 갑자기 팀 만들어서 하는 활동이 꽤 많고, 교수님 질문 엄청 하시고, 조별 과제 있습니다. 수업 자체나 시험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공부 안 하면 점수가 잘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수업 날마다 미니 테스트 과제 및, 에세이 과제가 있습니다.</p> <p>2. Art appreciation 수업 쉬운데, 좀 융통성이 없으셔서, paper를 안 주셔서 보여주시는 거 다 적어야 해요.....솔직히 원어민도 아닌데, 설명해주는거, 보여주시는거 멀티테스킹 안 돼서 하나는 포기해야 했어요.. 시험은 별로 안 어려워요... 그리고 사진도 못 찍게 하십니다.. 수업 자체는 쉽고, 두개 정도 있는 과제도 쉽고, 질문도 안 하세요.</p> <p>3. Global logistics system supply chain management <b>“절대 듣지마세요”</b> 진심으로 듣지마세요. 북유럽 분이셔서 진짜 발음이 절대 알아 듣지 못해요. Forwarder 를 뽕^ 월돌 이려시고, Mexican을 멕리컨 이려시는데 정말 발을 때문에 수업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데, 그냥</p>

	<p>한국에서 들은 전공 지식으로 공부하고 수업 듣고, 시험 봤어요. 시험 별로 안 어려운데, 진짜 수업 절대 못 알아들어요.</p>
<p>2022-1학기 수업</p>	<p>1. <i>Supply Chain and operations management</i> 중국인 교수님이시고, 매우 깐깐하시고, 난처하고 어려운 질문 항상 하십니다. 같은 동양인이라 더 하시는 것 같아요...너는 알지..? 이런 느낌으로 질문 하십니다. 좋은신 분이데, 수업도 어렵고 시험도 제일 어렵습니다.... ^^ . 국제통상학과가 아니라면 들을 일도 없겠지만, 전공 지식 없으면 절대 듣지 마세요. 조별과제 없어요.</p> <p>2. <i>International Business</i> 시험도 쉽고 수업도 쉽습니다. 경영학과생이라면 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 외에도, X-Culture 라는 프로젝트를 같이 합니다.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라면 필수로 수행해야 하는 과제이고, 한달 반정도 진행되는 과제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전 세계의 학생들과 팀을 짜고, 다양한 회사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모든 수업이 조별과제로 행해지니, 조별과제 싫어하시면 하시면 안 됩니다.</p> <p>3. <i>Introduction of sociology</i> 강추 드립니다. 초반에는 일주일에 두번인데, 한 중반부터 일주일에 수업을 한번만 진행하세요. 수업도 엄청 쉽고, 과제도 엄청 쉽고, 시험도 엄청 쉽고, 대답도 자발적으로 하고 싶을 때만 하면 됩니다.</p> <p>4. <i>Integrated supply chain system</i> 따지고 보면 가장 어려운 수업일 수업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속 엑셀로 수업하고 시험도 엑셀로 해요. 엑셀 하나도 할 줄 모르면 안 듣는게 나아요. 하지만 교수님 정말 친절하시고, 저는 어려워도 이 수업만큼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항상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정말 수업 시간 내내 한시도 딴생각 없이 수업을 따라가셔야 해요. 처음에 하나 놓치면 뒤에 공식에 들어갈 함수를 넣을 수가 없어서, 다 망해요. 저는 친해진 미국인 친구랑 같이 수업을 들어서, 서로 못 들은 부분을 보완해 주면서 들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가장 열심히 들은 수업이라 좋아하는 과목이지만, 추천은 안 합니다. 미국인 학생들도 어려워하는 수업이에요. 그리고 시험 5번 쳐요... ^^ 마지막에 조별, 개인 발표까지 따로 있습니다.</p>
<p>프로그램 운영</p>	<p>굳이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뿐만 아니여도 일주일에 몇 개씩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운영해요. 그런데, 저는 별로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를 안 하는 편이었어서 말씀 드릴게 없어요.</p>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한국 보다 덜 덥고, 한국 보다 덜 추어요. 굳이 룽패딩 말고, 그냥 두꺼운 바지에 숏패딩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해가 엄청 뜨거우니, 제발 선크림 바르세요.
안전	학교 주변이다 보니 많이 안전합니다.
숙소	<p>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O) 기타( )</p> <p>저는 학교 옆에 있는, Stone Ridge Commons라는 곳에서 일년을 지냈어요. 아파트 같은 곳이고, 학생들이 주로 지내요. 기숙사 보다 싸고 넓고 좋습니다. 학교랑 3분 거리에요. 엄청 넓고 부엌 방 거실 욕실, 화장실 다 있고 좋아요. 유의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는 잘모르겠는데, 옆방에서 대마 피면 복도에 대마 냄새로 가득차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전자레인지 없고, 대신 오븐 있습니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 직접 요리 (O) 기타 ( )</p> <p>Meal Plan 신청을 안 했고, 집에 부엌 있어서, 2주에 한번씩 월마트에서 장보고 해먹었어요. 밀플랜 신청하면 있는 금액만큼 학교내에 있는 가게나 학교식당을 횡수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아요.</p>
교통	교통 극악입니다. 하지만 전 학교 옆에 살아서 통학에는 전혀 문제 없었어요.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380만원	제가 막 1주일 전에 구매해서 그래요.....
Fees	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260만원	한학기에 130만원 정도, 학교 시설비용? 활동비용? 으로 지불을 해야했어요. 근데 워낙 학교에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많아서 이해가 되었어요.
보험료	2000만원까지 보장되는 여행자 상해보험	
숙소	총 1000만원 정도지출 한 것 같아요.	
식비	이건 잘 모르겠어요. 룸메랑 반반해서 풍족하게 먹으면 1인당 월마다 20만원~ 25만원 정도 쓴 것 같아요. (나가서 사먹는거 제외하고, 장보는 비용만요)	
교통비	안 들었어요. 학생증 있으면, 버스가 공짜예요.	
책값	전 다 E-Book 렌트해서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불했어요. 책 값이 비싸요. 근데 굳이 사지 말고, 한 2주 정도 버텨보고 진짜 필요하면 사세요..	
기타1		
기타2		
합계	여행가고 뭐하고 하면, 한 2000쓴 것 같아요.	





## 5. 출국 전 준비사항

비자는 미리미리 해두기, 비행기도 미리미리 예약하기, 봉사도 미리미리 해두기...^^

## 6. 본인 소감 및 평가

영어 공부하러 간건데, 실제로는 수업 따라가고, 시험친다고 (첫학기에는 과제만 60개는 한 것 같은데, 막학기에는 시험만 15개 쳤어요) 영어 자체를 공부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의 문화를 공부하고,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와 약자를 배려하고 차별을 인지하고 지양하는 사회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한국에서는 인종이나, 계층, 성별 이슈 같이 민감해질 수 있는 주제들을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는 경영 수업에서도 자연스럽게 언급하고, 생각을 나누는 것이 정말 이게 선진국이구나 싶었어요.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꼭 추천 드려요. 학교 고르실 때, 점수 말고, 위치 보고 도시로 고르세요. 무조건 도시로 고르세요. 교통 좋은 도시로... 미국인 친구들 없었으면 학교에서 썩을 뻔 했어요.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이탈리아계 멘토 교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셔서, 학기 막바지에 카약을 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학교에서 40분 정도 떨어진 강 아니면 호수인데, 정말 좋았어요.</p>	<p>미국에서 제일 많이 먹었던 씨리얼인데, 다른 것들에 비해 많이 달지도 않고 진짜 맛있어요.</p>
	
<p>CUP 이라는 학교 건물인데, 밖에 있는 테라스에서 찍은 학교의 밤이에요.</p>	<p>학교 지도예요.</p>



제가 살던 숙소에서 보이는 바깥  
풍경이에요 ㅎㅎ



등교하다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찍은  
사진이에요. ㅎㅎ